

‘국가 AX 혁신거점 광주’ 본격화…AI 3강 도약 이끈다

내년 정부예산 AI분야 1천634억원 확보
NPU센터·자율주행 실증·AI특화병원 등
역대 최대…인프라·실증·인재양성 강화

광주시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인 ‘국가 AX 혁신거점 광주’ 조성을 본격화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조9천497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AI 예산은 1천634억원으로 대규모 실증·기반시설 구축·인재양성 전 분야에서 확보,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

특히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센터 타당성 연구(6억원, 광주 AI 실증도시 실현사업 기획 5억원, 자율주행 도시 단위 실증 611억원, AI 특화병원 조성 30억원 등 국가 전략 분야인 자율주행·반도체·헬스케어 실증사업에 전례 없는 예산이 반영돼 광주가 국가 AX 혁신을 선도할 거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국가 AX 거점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조성의 타당성 연구(6억원)를 추진하고,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192억원)를 통해 고성능 컴퓨팅 자원(H100) 공급을 확대한다.

또 퍼지컬AI 기반 휴머노이드 제조혁신센터 구축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험생산과 성능평가 등 산업 현장 AX 확

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도시 전역에서 AI를 실증하는 ‘광주형 규제프리 도시모델’ 기획(5억원)에도 착수한다.

교통·안전·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AX 실증밸리 조성(297억원)이 대규모로 추진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도시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AI 인재양성도 한층 강화된다. AI사관학교(105억원)는 최고급 실무교육 과정인 ‘SW마에스트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전 과정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운영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광주 AI 과학영재학교 설립 예산(31억원)도 반영돼 초·중·고·대학·산업으로 이어지는 AI 인재 사다리가 확고해진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산 NPU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이 대폭 확장된다.

AI 반도체 실증 지원(220억원),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구축(60억원)을 통해 설계검증, 패키징, 고장 분석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 국산 AI 반도체 상용화를 가속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와 모빌리티를 융합해 신도시에서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미래도시모델 조성 계획(10억원)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차 200대 규모의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611억원)이 추진된다.

자율주행 데이터 학습을 위한 GPU 기반 AI 학습센터 기획(7억원)도 포함됐다.

의료·바이오·뷰티 분야에서는 방문·접수, 진료·진단, 수술, 입원·병동, 퇴원·수납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에 AI 기술을 집적·적용한 AI 특화병

원 운영(30억원), 지역 내 노화 코호트(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기독병원)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실증연구지원센터 구축(16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AI헬스케어 실증 콤플렉스 조성(25억원), AI 뷰티기기 기술 고도화(10억원) 등을 통해 실증 및 산업화 기반이 탄탄히 마련되며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 본격화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내년 정부 AI 예산 확보로 광주는 국산 반도체(NPU), 최첨단 자율주행, AI 병원 등 국가 AX 핵심 전략을 최초로 실증하는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정교한 사업 기획과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광주가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이끄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인공지능인의 날’ 산·학·연 한자리 김영문 광주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 5일 북구 오룡동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5회 인공지능인의 날’에 참석해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에 ‘Arm스쿨’ 설립…설계 인재 1천400명 양성

산업부-Arm社, 양해각서 체결
후보지로 광주과기원 우선 검토

세계 최대 반도체설계(팹리스) 기업인 Arm이 광주에서 향후 5년 간 반도체설계 전문인력 1천400명을 양성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산업통상부와 글로벌 반도체설계 기업인 Arm이 내년에 반도체설계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Arm스쿨’을 설치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면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Arm스쿨’ 설치와 함께 반도체특성

화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후보지로 광주과학기술원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과기원에 ‘Arm스쿨’이 설치되면 이곳에서 향후 5년 간 반도체설계 분야 전문인력 1천400명을 양성하게 된다.

광주시는 Arm스쿨 설립 추진과 함께 광주AI사관학교 고급·심화과정 중심 개편, AI영재고 설립 등도 추진한다.

7년 차를 맞는 광주AI사관학교는 내년(7기)부터 기존 실무 중심 교육에서 고급·심화 중심으로 운영체제로 개편된다. 2020년부터 2025년(1-6기)까지 산업 현장의 직무 수요에 맞춰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는 AI전문가 멘토링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해 미래 AI산업을 선도하는 고

급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AI-SW 최고 전문가 멘토링 중심의 ‘AI-SW 마에스트로 과정’을 도입키로 하고 사업비 105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AI영재고’ 설립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재정분담률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Arm스쿨 설립은 광주가 AI 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더 단단한 AI 인재양성 사다리를 만들어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데 광주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국립트라우마치유 전남센터 내년 하반기 개소

도, 국비 6억 확보…1만2천명 치유 지원

전남도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6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수·순천 10·19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광주(5·18 민주화운동), 제주(4·3 사건)에서 본 사업이 운영 중이다.

이번 국비 확보는 전남도와 여순항쟁유족총연합회가 전남 동부지역의 국가폭력 피해 회복

을 위한 센터 설치를 지속 건의한 결과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로서 국가 책임하에 치유를 지원하는 첫 시도적 실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센터는 치유가 필요한 희생자·유족 1만2천여명을 위해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교육 ▲미술·음악·원예·여행 등 예술치유 프로그램 ▲물리·한방치료 ▲신체 재활 프로그램 등 치료·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비 추가 확보, 유족총연합회·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센터장소 선정, 세부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 조속한 개소에 나설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주일본전남사무소, 오사카서 ‘김장축제’ 성료

주일본전남도사무소는 지난 6일 일본 오사카에서 “2025 김장축제”를 개최, 전남 음식문화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오사카전남도도민회, 오사카 부의회 관계자, 일본인 현지주민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김장김치를 만들고 수육, 김밥 등 한식 시식행사를 통해 전남의 음식문화를 홍보하고 우호교류를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전남에서 수확한 배추와 각종 양념 채소를 사용해 음식문화 본고장인 전남의 김치 맛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행사장에는 김치 만들기뿐만 아니라 전남의 판소리를 들려주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도 마련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남도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상영해 김장축제



참가자들에게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장대원 주일본전남도사무소장은 “이번 김장축제를 통해 전남도를 일본에 알리고 다양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음식문화와 역사관광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전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많은 일본인들이 전남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